
기획논문

20세기 한반도의 지(知)와 소련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20세기 내내 소련이라는 몸에 깃들어 있었다. 어찌면 간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한반도 지식인에게 소련은 동경의 땅이자 때로는 부담스런 외세였다. 소련의 세계사적 지위와 역할이 그러했지만,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소련은 늘 자본주의 미국에 비견되는 존재였다. 사회주의는 한반도의 정치와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다. 식민지기 사회주의 세력은 독립운동의 가장 급진적이고 헌신적인 부분이었다. 코민테른의 권위는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이었다. 이에 맞서 일본 제국주의는 줄곧 소련을 주적으로 상징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에 힘입어 해방이 찾아왔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분단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북녘에는 사회주의를 내건 국가가 건재하다.

이 기획의 주제는 한반도의 학문/지식과 사회주의 소련의 교섭 관계다. 홍중욱의 논문은 소련 역사학이 북한 역사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건국 초기 북한은 ‘소련을 향해 배워라’라는 구호로 상징되듯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학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열중했다. 북한 역사학계는 스탈린주의 역사학의 소련 국민사 서술을 받아들여 일국사적 발전단계론에 입각한 민족사를 그려냈다.

서구의 주변부라는 입장을 극복하려는 소련의 노력은 일본이 남긴 식

민주의 역사학을 넘어서려는 북한에게 중요한 참조점이었다. 한편 소련은 여러 소수민족을 거느린 제국이었고, 나아가 후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와 학문에도 깊이 관여하고자 했다. 북한 역사학계는 소련의 간섭을 물리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보편적인 한국사 상을 세계사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했다.

김인수의 논문은 서대숙, 김준엽, 스칼라피노·이정식의 사회주의, 북한 연구가 가능했던 토대에 1950~70년대에 한국과 미국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에 성립한 한국학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국학은 일본의 ‘조선학’과 해방 이후 ‘국학’을 탈피하는 동시에 중국학, 일본학과 경쟁하면서 성장해야 했다. 자료와 실증에 대한 열정은 그것이 가져온 산물이었다. 미국 학계가 한국 측 파트너로 주목한 것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였고, 특히 소비에트 진영의 일각인 북한 자료를 직접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한국학 공동위원회(JCKS) 의장이 된 이정식은 소련 한국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냉전 시기 각각 남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미국과 소련의 한국학이 만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을 포함하여 소련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우려’ 탓에 소련 학자들은 교류에 소극적이었다. 홍종욱의 논문에서 다룬 1960년대 북한 역사학의 소련의 한국사 연구에 대한 전면 비판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학문의 대상이기를 그치고 스스로 학문의 주체가 되고자 한 것이다. 김인수는 선전이 학술을 집어 삼킨 남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학(Science)으로서의 한국학’이 냉전의 본산인 미국이 제공한 기금과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했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냉전환원론을 비판했다. 여기서 자국학은 과연 학(Science)이 될 수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장문석의 논문은 한국 현대문학의 거인 최인훈을 다루었다. 식민주의와 냉전은 최인훈 평생의 화두였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학문/지식이 소

련과 교섭하기를 멈춘 상황을 다룬 후일담이라 할 수 있다. 뒤늦게 소련 기행에 나선 한국의 문학자 최인훈은 선배 문학자 조명희와 이태준의 소련 체험을 더듬으면서 탈식민과 탈냉전의 열망을 담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마주한다. 냉전의 종식이 말해질 무렵 최인훈은 20세기의 역사를 거슬러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소련이라는 실패로부터 떼어내어 인류의 이상향이라는 본래 자리로 되돌리고자 했는지 모른다.

이 기획은 2020년 여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러시아 한국학대회 패널 참가를 위해 구성되었다.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신한촌 등 연해주에 남아 있는 한국인의 흔적을 살피는 조사 여행도 계획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대회가 무기한 연기된 탓에 글만 모아 이렇게 기획 논문으로 엮었다. 당초 러시아 한국학대회 패널에는 세 논문에 더해 6·25 전쟁 직후 미 국무부가 진행한 북한 연구를 다룬 류기현의 논문도 포함되었으나 이 글은 사정상 다른 곳에 발표하게 되었다.

홍 종 욱

